

'16년째 장기화' 목포 임성지구 도시개발 속도 낸다

LH 경영투자심사 통과...지장물 보상·사업 착수 등 '탄력' 관문 위치...인구유입·서남해안권역 균형발전 전환점 기대

16년째 장기화된 목포 임성지구 도시 개발사업이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경영투자심사를 통과해 속도를 낼 전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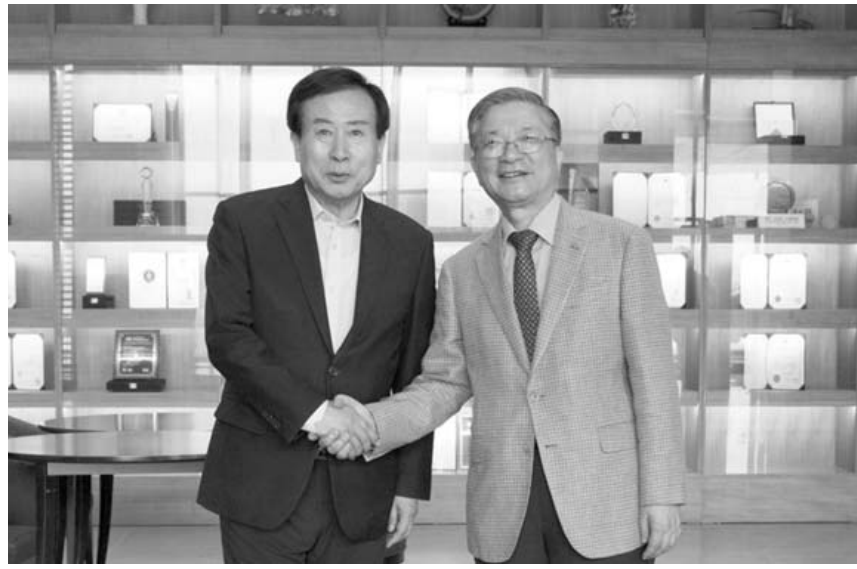
1일 목포시에 따르면 임성지구 개발 사업은 서남권의 관문인 석현동·옥암동 일대(60만평)에 친환경 주거 공간 조성을 위해 지난 2018년부터 사업시행자를 목포시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로 변경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임성지구 개발은 지난 2008년 개발행위 허가 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사업이 장기화되고 특히 지난 5월 진행된 한국토지주택공사의 경영투자심사 부

동의 결정으로 사업 추진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있었으나 이번 경영투자심사 통과로 지장물 보상과 사업 착수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임성지구는 임성역이 위치하고 서해안 고속도로의 종점인 목포권 관문에 위치해 목포시 지역으로의 인구 유입과 서남해안권역 균형 발전의 전환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토지주택공사 광주전남본부는 임성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개발 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변경(2020년), 실시계획 인가(2021년)를 거쳐 올해 5월 사업에 착수하고 지장물을 보상하기 위



박홍률(왼쪽) 목포시장이 지난 9월 한국토지주택공사 본사를 방문해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에 임성지구 도시개발사업 신속 추진에 협조를 요청했다. <목포시 제공>

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경영투자심사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했으나 부동산 침체, 물가상승 등으로 사업성 약화를 우려해 부동의 결정됐다.

이후 한국토지주택공사 광주전남본부와 목포시는 임성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경영투자심사 부동의 결정 사유와 향후 일정 등을 안내하기 위해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사업 추진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과 사업성 강화 방안 등을 마련했다.

또한 박홍률 목포시장은 경영투자심사 재상정에 앞서 지난 9월12일 임성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현안사항과 주민 부담 최소화 방안 모색에 나섰다.

박 시장은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한편, 한국토지주택공사 본사를 방문해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에게 임성지구 도시개발사업의 신속하고 성공적인 추진을 협조 요청하며 양 기관의 협력 체계를 공고히 다졌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최근 경영투자심사위원회에 안건을 재상정했는데, 경영투자심사위원회는 지방소멸을 방지하고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사업임을 감안해 임성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동의를 결정해 통과시켰다.

박 시장은 "16년이 넘는 장기간 동안 주거 여건이 열악한 어려운 상황에도 믿고 기다려 준 지역주민들과 부동산 시장이 침체돼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지역의 숙원사업인 임성지구 개발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해 준 한국토지주택공사에 감사하다"며 "향후 시는 지장물 보상과 환경계획 수립, 사업 착공 등이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목포=정해선 기자

장세일 영광군수, 내년도 국비 확보 '동분서주'

국회 예결위 방문 막바지 총력전...현안 17건 지원 요청

장세일 영광군수가 내년도 국비 예산 확보를 위해 회의를 방문하며 막판 총력전에 나섰다.

1일 영광군에 따르면 장 군수는 허영 예산결산위원회 간사, 안도걸 의원 등 국회 예결위원들을 잇달아 만나 영광발전 5대 핵심과제가 정부 예산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논의했다.

또한 정청래, 한준호, 서삼석, 박지원 의원 등과도 만나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지원을 요청했다.

현재 국회 각 상임위원회 심사를 마친 정부 예산안은 예결위 심사와 본회의 의결을 거쳐 12월 초 확정될 예정이다. 장 군수는 예결위 심사 기간이 국비 확보를 위한 핵심 시기라고 판단해 국회 방문을 추진했다. 영광군이 이번예결의 주요 사업은 총 17건, 5조2천573억원 규모로 ▲보건·복지 융복합 클러스터 조성(455억원) ▲영광 노을 명소화 사업(400억원) ▲무탄소 에너지 실

증연구단지 구축(200억원) ▲서해안(군산-목포) 철도 건설(4조7천919억원) ▲국도23호선 도로 확포장(1천344억원) ▲우평지구 배수개선사업(85억원) ▲국도77호선 대신지구 위험도로

개선(300억원) 등이다. 장세일 군수는 "열악한 지방 재정을 확충하고 '함께 만드는 영광, 같이 누리는 군민'의 군정 구호에 맞춰 더 나은 영광을 만들기 위해 국회 예산 심의가 끝날 때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영광=김동규 기자



장세일(오른쪽) 영광군수가 회의를 방문해 허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를 만나 지역 현안 사업의 예산 확보를 위한 국비 지원을 요청했다. <영광군 제공>

신안 해상풍력 군민펀드 지역상생 포럼 성료

재생에너지 펀드 플랫폼 운용...주민참여 방안 제시

신안군은 "최근 신안군청 공영장에서 '신안 해상풍력 군민펀드 지역상생'이라는 주제로 포럼을 개최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포럼에는 박우량 신안군수, 이상주 신안군의회 의장 및 군의원, 전남도의회 의원, 신안군-목포수협 조합장, 지역농협 조합장, 지역주민, 인근 지자체, 발전사 관계자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신안군민펀드 소개와 재생에너지 주민참여형 사업에 대한 국내·외 사

례가 발표됐다. 발표자로 나선 윤태환(우투드에너지) 대표는 재생에너지 펀드 플랫폼을 통해 2025년부터 운용되는 전국 최초 해상풍력 군민펀드를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주한 덴마크대사관 무역대표부 요아킴 아를 피셔(Joachim Arup Fischer) 대표는 주민이 50%의 지분을 소유해 수익을 창출하고 있는 덴마크 미들그룬텐 풍력단지를 소개하며 신안군에 적용가능한 다양한 운영 방식을 제안

했다. 또한 김지연 TUV SUD Korea 사무는 해상풍력 산업생태계 및 일자리를 설명하며 이를 연계한 주민참여 방안을 제시했다.

박우량 군수는 "신안군은 개발이익 공유제를 통해 군민의 34%가 햇빛연금 수혜를 받고 있다"며 "햇빛·바람연금 이외에도 군민펀드를 통해 전 군민이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투자에 직접 참여함으로써 새로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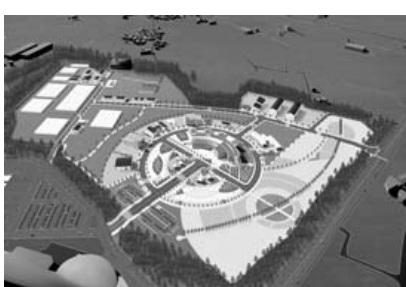
한편, 신안군은 신안우이 해상풍력 발전사업(390MW)을 시범으로 1천억원 규모의 전국 최초 해상풍력 군민펀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신안=양훈 기자

무안 첨단농업복합단지 조성 사업 '순항'

도 관리계획 변경 승인...내년 상반기 착공·2027년 완공 목표

무안군은 1일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첨단농업복합단지(조감도 사진) 조성사업이 전남도 도시계획위원회의 관리계획 변경 결정 원안 승인을 받았다"고 밝혔다.



관리계획 변경 결정안을 입안하고 관계 부서, 기관과의 지속적인 협의 끝에 전남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원안 가결 승인을 받을 수 있었다.

이번 승인으로 사업 부지 중 7만여㎡의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하는 용도지역 변경을 진행하고, 전체 사업 부지는 공공청사(농업기술센터)로 군 계획시설을 결정하게 돼 150억원의 국비 확보와 더불어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게 됐다.

그동안 사업 추진에 가장 큰 걸림돌이던 사업 대상 부지의 약 98%의 농림지역은 무안군의 끈질긴 노력과 서삼석 국회의원의 설득이 더해져 지난 5월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업진흥지역 해제 동의를 받을 수 있었다. 앞으로 군은 주민 공람·공고와 고시 절차와 설계 등 각종 용역을 마무리하고 내년 상반기에 공사를 발주해 2027년에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무안=김상호 기자

영암 집중호우 대상지, 영암사랑상품권 20% 적립

금정·시중·미암면...침체지역 경제 활력 지원책

영암군은 1일 "지난 9월 집중호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금정·시중·미암면의 경제 회복을 위해 영암사랑상품권 20% 적립 이벤트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예산 소진 시까지 진행되는 이번 이벤트는 세 지역 영암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 상품권으로 결제할 때 결제액의 20%가 적립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김동식 영암군 일자리경제과장은

완도 남파랑길, 해양치유·걷기 명소 자리매김

해양치유센터·수목원 등 치유 관광지 연계 '호응'

완도 남파랑길이 해양치유와 웰니스 관광 명소로 자리 잡고 있다.

1일 완도군에 따르면 지난 10월부터 완도해양치유센터, 정도리 구계동, 완도수목원 등 웰니스 치유 관광지와 연계한 1박2일 남파랑길 걷기 프로그램을 성황리에 운영 중이다.

남파랑길은 우리나라 동서남북을 잇는 코리아 둘레길의 남해안 구간으로 90개 코스 중 완도에는 85, 87, 88코스(총 57.8km)가 있다. 완도 남파랑길 86코스(24.5km)는 옛 남창교에서부터 청해진 유적

지를 지나 완도해조류센터까지, 8코스(18km)는 해조류센터부터 완도타워, 정도리 구계동, 화흥초등학교에서 끝난다. 88코스(15.3km)는 화흥초등학교에서 시작해 상왕봉, 완도수목원을 지난다.

완도 남파랑길은 다도해를 품은 해안길, 고즈넉한 어촌 마을 안길, 다도해해상국립공원 탐방로 등 바다, 산 등이 어우러진 매력을 품고 있어 관광객의 발걸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올해 남파랑길 걷기 체류형 프로그램은 1박2일 동안 남파랑길 완도 구간 1

"호우 피해를 입은 주민과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고, 침체된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지원책으로 이번 이벤트를 마련했다"며 "세 지역 경제에 활기가 돌도록 많은 이들이 이벤트에 참여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이벤트 기간 이용할 수 있는 가맹점 등 자세한 사항은 영암군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다. /영암=나동호 기자



남파랑길 1박2일 걷기 프로그램 참가자들이 완도 신지명사심리 해수욕장 앞에서 코스 완주를 기념하며 사진을 촬영했다. <완도군 제공>

강진군, 한랭질환 응급실 감시체계 운영

내년 2월까지 발생현황·모니터링 등 신속 보고

강진군은 1일 "겨울철 한파에 따른 주민 건강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내년 2월까지 3개월간 '한랭질환 응급실 감시체계'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한랭질환 응급실 감시체계는 감시기관인 전남도 강진의료원 응급실을 방문한 한랭질환자를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하고, 강진군 보건소는 한랭질환 발생 현황, 주요 특성 모니터링으로 신속한 보고 체계를 유지한다. 지난해 한랭질환으로 전국에서 401

명(사망자 12명)의 환자가 신고됐다. 전남은 13명(사망자 1명)이 발생했고 강진은 환자가 없었다.

전체 발생 환자 가운데 연령대별로는 80세 이상 환자가 118명(29.4%)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60대 69명(17.2%), 50대 62명(15.5%) 순이었다. 65세 이상은 51.6%를 차지했다. 발생 장소로는 75%가 실외(길가, 주거지 주변, 논 등)로 확인됐다. 한랭질환은 추위가 직접적인 원인이

돼 인체에 피해를 입힐 수 있는 대표 질환으로 저체온증, 동상 등이 있으며 방치하면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초겨울에는 신체 적응력이 떨어져 약한 추위에도 한랭질환의 위험이 크므로 주의해야 한다. 특히 면역력이 취약한 노인이나 소아, 추위에 대한 인지가 어려운 음주자, 겨울철 야외작업이 잦은 근로자 등은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한랭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가벼운 실내운동, 적절한 수분 섭취, 균형 잡힌 식단으로 충분한 열량 섭취, 실내 적정온도(18~20℃) 유지, 외출 전 외부 온도 확인과 추운 날씨에는 외출을 자제해야 한다. /강진=정영록 기자